

우리 손으로 만드는 공정방송

제작·보도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에 돌입하며

차기 제작국장과 보도국장 후보자를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전 조합원의 뜻을 모아 추천하는 ‘제작·보도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이하 ‘추천 선거’)’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CBS는 노동조합 창립 직후인 1989년부터 노사가 공동으로 편성·보도국장 후보자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왔고, 1995년부터 현재의 추천 선거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해왔습니다. CBS 공정 방송을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 크고 작은 문제점도 있었기에 일각에서 ‘임명동의제’ 등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노동조합 내부의 치열한 논의와 노사 협의를 거쳐 현재의 추천 선거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문제점 및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선거 시행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1차와 2차 투표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국 조합원들의 1차 투표를 거쳐 2차 전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최종 투표에서 해당국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뿐더러, 이를 보정하기 위해 설정한 해당국 가중치 조항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천 선거부터는 1차 (해당국 가중치 조항이 없는) 전 조합원 투표, 2차 해당국 조합원 투표로 투표 방식에 변화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의를 반영하면서도 해당국 조합원들의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취지입니다.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노사가 결의했습니다. 추천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선거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는 ‘추천 선거’라는 제도의 특성상 후보자의 직접 선거 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미 합의·계시된 노사 공정방송협의회 합의문 및 ‘추천 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11월 8일(월) 예비 후보자 통지일부터 일체의 선거 운동이 금지됩니다. 식사 등 대면 만남 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측근들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연락 및 접촉을 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부정한 선거 운동, 부적절한 연락 및 접촉이 있는 경우 노조 공정방송위원회(02-2650-7390~2)로 제보해주시요. 노동조합 역사에 전설로 남아있는 윈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제재 조치로 공정방송을 위한 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 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신 공청회, 노보, 공방위 특보, 뉴스레터, SNS 등으로 예비 후보자들의 공정 방송 및 콘텐츠 혁신에 대한 의견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추천 선거 방법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이번 노보 곳곳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 언론을 만들기 위한 선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의 역사와 의미를 생각하며, 올해 남은 절차도 잘 마무리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위원장 반태경·공정방송위원회 간사 장규석

02 새 제작국장에게 바란다 : 오래된 정답 (인력 / 디지털콘텐츠 / 소통)

03 새 보도국장에게 바란다 : 공정과 미래 (소통 / 동기부여 / 인사)

04 오~ 정한 게임 : 사장님, 우리 깰부죵아요 (임단협 투쟁 의견 수렴)

05 어떤가요 : 라디오에서 하지 못한 시도들 / 그땐 그랬지 (옛 노보)

06 [기고] 해법의 시작은 돈이 아닙니다 / 방송광고 결합판매 세미나

07 인사 / 동정 / 수상 그리고 뒷이야기

새 제작국장에게 바란다

소원은, 어제 바라던 그 것



<차기 국장에게 바란다> 함>을 만들어 일주일이 지나 열었다. 42명의 노조원이 있는 제작국에서 딱 5장. 한 조합원의 말이 머릿속에 스친 듯 지나갔다. '학습된 무기력'. 정말 그런 것일까? 직접 한명 한명 만나 물었다. 백이면 백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왜냐?

5년전 노보를 보자. "신임 편성국장의 향후 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라디오 콘텐츠의 재도약이라는 두가지 문제다"(16년 1월 19일자)

5년이 지난 2021년, 지금 함에서 꺼낸 5장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정확히 일치했다.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국장의 과제는 5년간 달라진 게 없는 걸까, 아니면 말해도 별 소용이 없다며 무기력해진 걸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제작국 구성원들이 신임 국장에게 바라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 답변을 받았다.

▲역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문제

- 배당 운영: "<김현정의 뉴스쇼>에 일부 PD들만 반복 배당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 이 문제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다고 생각하나? 국장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동기 부여: "나는 하루종일 일하고도 시간이 부족한데,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보이는 분들.. 심지어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손해 보는 듯한 이 기분은 무엇? 공평한 업무 분배에 대한 국장의 계획은 무엇인가?"

▲디지털 콘텐츠, 정말 관심있는가?

- 유령 부서: "현재 유명무실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부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지금처럼 현업에 더해 가윗일로 '갈아 넣어' 만드는 체제로 디지털 전략이 가능할까? 디지털 콘텐츠에 우선순위는 있는 건가?"

- 인적 교류: "제작국만으로 충분한 제작역량 확보가 어렵다면 디지털 콘텐츠국이나 보도국 등 다른 제작부서와의 협업이나 파견 등 조직간 융합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 외부 사업: "제작국의 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외부 특집 사업들을 놓고, 이것이 정말 새로운 제작의 기회와 활로 모색인지, 제작비 절감을 통한 수익 최대화를 노리며 퀄리티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닌지, 논란이 있다. 이런 사업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소통 강화

- 제작국 회의 부활: "대화와 소통이 없는 조직, 수면 아래 잠재된 갈등만 커져가기 마련, 코로나로 차단된 소통의 복원이 필요하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달라"

- 편성, 진행자 배치에 국원 의견 반영: "함량 미달, 색깔이 맞지 않는 외부진행자들, 교체 좀 해달라"

- 편성권 독립: "사장과 이사들의 압력에도 편성권을 지켜낼 제작국장이 필요하다"

제작국은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음을 모르지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제작국장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충분한 답을 가지고 있나?



새 보도국장에게 바란다

공정과 미래를 논합시다

CBS 뉴스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새 보도국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보도국 조합원들이 차기 국장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기자들은 절박하다.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미래비전 상실'과 '소통의 부재'를 꼽았다. 보도국 구성원의 명예와 직결하는 '공정보도 원칙'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쟁사보다 적은 임금이나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고질병은 뒤로 하더라도, 소통 부재로 인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임계점에 가까운 상태다. 최근 몇년간 주니어 연차 기자들이 연달아 회사를 떠났지만,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CBS가 아닌 다른 언론의 문을 두드렸는지 고민하고 성찰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대선 관련 민감한 이슈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데도 우리 보도국은 TF팀 하나 꾸리지 않고 지금까지 현장 기자들의 '개인기'로 보도를 이어왔다. 보도국 구성원들이 신임 국장에게 바라는 점. 소통부재와 동기부여, 인사 등 카테고리 있는 그대로 정리해 쏜다.

▲소통·세대갈등

- 주니어 기자 의견 수렴제도 강구 : 한겨레신문 '레드위원회'나 서울신문 '주니어보드'처럼 현장 주니어 기자 의견을 상시적으로 보도국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보도국 익게(익명게시판) 신설 : 보도국 내 격의없는 소통을 위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 신설
- 시니어 기자 역할 : 시니어 기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역할과 업무의 재조정 및 주니어 기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 마련

▲처우·동기부여

- 우수기자 시상제도 개선 : 분기별 시상식을 매달 하는 것으로 바꾸고 포상금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 기타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취재비 실비 청구제도 : 도서와 논문,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 취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가능한 보도국에서 부담해야. 회사 이메일 용량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녹음파일 워딩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유료 사용도 필요

▲인사·운영

- 인사 적체 해소 : 한 부서에서 수년 동안 근무한 인원들을 점검하고 부서 순환 보장. 특히 무조건 '저연차는 사회·정치부터 굴러야 한다'라는 인식 개선하고 기자별 전문성과 스타성 키울 방안 필요
- 소원수리 : 부서 인사 전 기자별로 희망 근무부서 접수 공식화하고, 만일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데스크 차원에서 설명
- 상시적인 TF 구성 : 시급한 이슈나 현안이 터졌을 경우, 또는 파급력이 강한 정보를 확보했을 경우 등 부서간 칸막이를 뚫고 유연하게 TF를 구성해 대응

▲기타

- 국장 임기 중간에 공약 이행여부 점검 : 언제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으로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임기 1년 지난 시점에 이행여부 점검을 진행해야.
- 국장 피선거권 자격제한 완화 : '보도국 내 근무 10년 이상+보직부장 근무 경력'인 피선거권 자격제한을 완화해야.

정리 / 보도국 김태현 노보편집위원



줄다리기 **임단협 투쟁!**
사장님, 우린 **깐부** 짱아요~

오징어 게임

함께 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해보세요

CBS와 플로(FLO)가 협력 관계를 맺어 새로운 시사, 인터뷰 오디오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특히 20~30대를 겨냥해 라디오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를 한다네요. 상당한 수익도 예상된다고 하고요. 현재도 '뉴스 5분' 콘텐츠가 지난 2월부터 플로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어요. 새 콘텐츠는 11월 15일부터 CBS 레인보우 팟캐스트와 플로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가요

당신이라는 수수께끼 / 제작국 정혜윤 조합원

나는 '김종대의 뉴스업'을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시선을 받지는 못한 채 종료했고 그 뒤 계속 나에게 물었다. 내가 라디오 피디로서 더 뭘 해볼 수 있을까? 나는 라디오 피디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했지?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나는 늘 대답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좋은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낼 때 자부심을 느꼈고 기뻛고 내가 아주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지 않는다고 힘을 내곤했다. 결국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힘을 내보기로 했다. 나는 '당신이라는 수수께끼' 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을 해보기로 했다. 단단의 아이돌 황인찬 시인 (나는 황시인이 아이돌인줄 알고 섭외했다. 섭외 후에 물어보니 황시인 말이 요새는 시대가 어찌나 빠르니 자신은 이제 끝났다고 했다. 섭외 전에 물어보면 솔직히 말해줬을 것이라고 했다.)이 진행자다. 인터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항상 피디들을 어려움에 빠트리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초대손님이 말을 잘하면 방송이 재미있고 초대손님이 말을 못하면 방송이 지루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나는 그 두 문제를 돌파해보기로 했다. 어떻게 돌파해? 일단 초대손님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온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단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다. 그 단어 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나는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다. 예전에 서호주로 여행을 갔을 때 한 남자가 오후의 햇살 아래 혼자서 카누를 타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본 그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그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에게 카누는 뭘니까?”

“카누가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지요.”

나는 그 대답을 줄곧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책이 없으면 내가 아니고 라디오가 없으면 내가 아니고 '경이로움'이란 단어가 없으면 내가 아니다. 이 단어들을 빼고 나를 말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다. 하여간 출연자는 그 단어를 두 개 정도 고민한 다음에 그 단어로 스무고개같은 수수께끼를 만든다. 그 수수께끼를 출연자가 진행자인 황시인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제 수수께끼의 대답이 알려지면 인터뷰는 쉬워진다. 질문은 이거 하나면 된다. “당신에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서로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중이니까. 문소리 배우와 김금희 소설가와 이미 한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고 결과는? 마음이 설다. 왜냐하면 그 인터뷰 시간 내내 누군가는 너무나 알고 싶은 수수께끼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섭외를 진행하면서도 초대손님들이 대체 어떤 단어를 들고 올지 짐작도 할 수 없어서 두근거린다. 나는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사람의 '고유함' 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유일무이한 인생이야기는 모두 그 단어에서 나온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충분히 궁금해하지 않고 타인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기를 즐기는, 혹은 타인에게 아주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반대로 '너의 목소리를 내라!' '너의 삶을 즐겨라!' 는 말이 고독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나는 이번 '당신이라는 수수께끼' 를 통해서 우리 모두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세계는 자기혐오도, 자기 연민도, 과도한 나르시즘도 없는 세상을 향해 열린 아주 부드러운 자아의 세계다. 이제 첫 발이고 나는 내가 다시 타인에게 감탄하고 불타는 존경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슈FLEX / 제작국 박선형 조합원

이슈FLEX는, '엠지'로 발음해야 하는지 '엠제트'로 발음해야 하는지도 모를 MZ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시사 방송입니다. 진행자를 포함해 모두 30대 여성으로 구성된 제작진들이 만들어간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상에 관심은 많지만 뭘부터 들어야 할지,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별처럼 쨍쨍하게 날아가 나비처럼 팔랑거리고자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사' 라는 말은 그 당시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칭하는 말이더군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어렵게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궁금했던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고 공감 가는 것에 느낌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좋아요' 로 응원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뉴스1타 / 제작국 김덕기 조합원

MZ세대의 뉴스 감성은 '뉴스 일타 강사' 김덕기 앵커가 사로잡습니다.

김덕기 앵커가 뉴스의 핵심을 짚어주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뉴스 '뉴스1타'는 매일 오전 11시 30분 플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 8일(월)부터 출발합니다!

그땐 그랬지(다시 보는 옛 노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기독교방송노동조합**
제98호

CBS 노보

발행인: 정남진
편집장: 허욱
간: 1995. 8. 23
호: 650-7390~2
스: 650-7393
우편번호: 158-701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편성·보도국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투표 25일 실시

권호경 사장은 8월 12일(토) 오전 11시 사장실에서 위원장, 사무국장장과 만나 '9월초 편성·보도국장 및 일부 지방본부장 등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단체협약 39조(편성·편집권 독립)에 따라 편성·보도국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낮 12시 조합사무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가진 데 이어 18일 대구방송본부에서 전국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편성·보도국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투표의 시기 및 투표방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은 편성·보도국장 임기가 단행에서 규정한 2년을 못 채웠지만 전국

단위의 국장급 인사이기 때문에 투표를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25일(금) 조합 및 각 지부에서 편성·보도국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편성·보도국장 선출을 위한 투표방식도 종전의 부적합자 배제방식에서 적극적 추천방식인 조합원 1인1표제로 투표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추천자 수도 종전의 3배수 대신 2배수로 줄여자는 의견이 제시돼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붙여 2배수 추천을하기로 했다. 편성·보도국장 후보자 명단은 게시판에, 각 후보자의 약력은 조합 및 각 지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권호경 사장 취임 이후 2번째

이며, 다채널, 멀티미디어 시대의 본격 개막과 올 연말로 예정된 FM 개국, 96년 총선 등 굵직한 이슈 및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CBS의 편성·보도국장 선출에 사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회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 라디오 보도부문 <CBS 뉴스기획>

보도국의 <뉴스기획, '화물트럭 비포그 비리의 현장'외>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보도부문 우수작품상에 선정됐다. 또한 '시사자키 오 뉴스 내인' 다다 FM이 한국여보

◀다채널 시대의 개막이라니.. (1995년 8월 노보)

1989년부터, 1995년을 거쳐 이어져오는 국장 선출 조합원 투표 제도의 역사를 들여다보자!

영광 없는 상처▶ (1995년 6월 노보)

주5일 근무가 아니던 시절, 토요일 오후에 모여 소속 국의 명운을 건 '오징어게임'이 펼쳐졌었네요. 당시 노보만 읽어봐도 뜨거웠을 응원전과 뒷풀이가 상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함께 모일 날이 곧 오겠지요?

중앙국 편성 - 보도국 체육대회

중앙국 편성제작국과 보도국 조합원들은 지난 6월 10일 (토) 오후 2시 양강중학교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첫 경기로 열린 축구시합에서 편성국이 전반 10분 만에 한 골을 넣어 1:0으로 앞섰으나 보도국 조합원들이 맹추격에 나서 1:3으로 역전패 했다. 축구시합에 이은 배구경기에서도 보도국이 2:0으로 완승했다.

한편 이 날 경기에서 축구 골키퍼에서부터 배구까지 몸을 바쳐 뛰던 편성국 배재우차장이 배구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을 삐었으며, 신동원 조합원은 농구연습 도중 허리를 다쳐 한달간 입원하는 등 영광없는 부상만 입었다.

해법의 시작은 ‘돈’이 아닙니다.

[기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 정책협력실장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조합원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분과 함께 모여 나눌 이야기를 지면으로 대신 합니다. 지면으로 처음 뵙는 것도 죄송한데 CBS 재원을 이야기해야 하니 더 어렵기만 합니다.

다양한 시청각 콘텐츠를 만드는 노동자에게 ‘네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하루 단위로 다른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공장’에서는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은 광고와 브랜드 효과를 기대하는 전국 권역 KBS, MBC, SBS의 광고 시간대를 구매할 때, CBS 등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 시간대 또한 함께 구매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보다 영향력을 갖추었을 때, 이러한 ‘결합판매’ 방식은 CBS 조합원들에게 시청취율과 수익 압박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롭게 해주는 순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들이 더 다양한 효과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매체와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지상파 방송은 광고 매체로서 경쟁력을 잃은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광고시장의 위축으로 이전보다 더한 협찬이나 각종 부가사업을 통한 ‘영끌’ 노동이 각 자도생의 방송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결합판매 규제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화 기간 동안 일시적인 수익 보전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중장기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언론노조와 학계에서는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CBS 조합원 여러분의 의지와 전망일 것입니다.

CBS는 30여 년 동안 특수목적종교방송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방송에서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종교방송에서 왜 선교 등 종교적 목적 이외의 콘텐츠를 만드는지 정치권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 방송사 구분이 여전히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개신교의 다양한 교단이 참여한 재단이라는 소유구조와 별개로 CBS는 100% 자체 편성을 하고 있는 중소독립방송이라는 정체성이 더 어울립니다.

종교적 가치란 공공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는 CBS가 책임져야 할 가장 우선의 공적 책무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변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CBS 재원의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결합판매 제도 변화와 같은 수익에 대한 우려를 먼저 앞세우면 잊혀질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 해결의 순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CBS는 어떤 방송이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일 것입니다.

위기의 중소 방송사, '방송광고 결합판매' 해결방안은?

[중소방송 공동 주최 세미나]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현 과제와 중소방송 공적지원 방안 모색

전문가들 "지역,중소 방송사 공공성, 다양성 가치 여전히 유효해" / "방송광고 결합판매 사라질 경우 공공성, 공익성 가치 훼손" /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보완 위해서는 정부 공적 자원 마련해야 / 기금 확충 및 신설, 정부광고 우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제시 (2021년 10월 19일 CBS 공개홀 현장 스케치)



부위원장 인사



이예원 부위원장(경영협회)

안녕하세요 선교국 이예원입니다.
수많은 후원자들을 만나며 보이스피싱범으로 오해도 받아보고 눈물 콧물 쏟을 만큼 감동도 받으며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노보에 소개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앞서네요.
어떻게 인사하고, 마무리 할 지 키보드 앞에서 한참 고민한 것처럼 고심해가며 함께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정

-정년퇴임 : 기술국 박세경 조합원 정년퇴임(11월)



박세경 선배님
(가운데)과
노조 집행부 오찬

"CBS, 그리고 CBS노동조합이 더 야성을 갖고 할 말은 제대로 하고, 비판할 것은 제대로 비판하고 하는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조합규약에 따라 정년조합원께는 감사패와 황금열쇠를 전달합니다.)

-결혼 : 디지털콘텐츠국 김동희 조합원(9/11), 기술국 최동철 조합원 장남(10/11), 광주본부 기술국 윤영호 조합원(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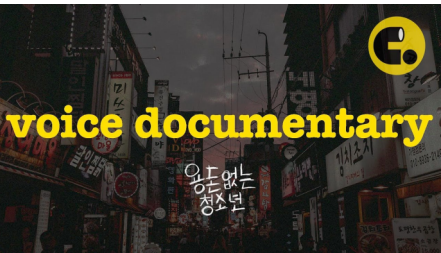
수상



보도국 서민선 조합원

- 한국기자협회 선정 제373회(2021년 9월)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 / 「화천대유, 광산도 의원 아들에 퇴직금 50억 지급」 / 서울 보도국 서민선 조합원
- 한국PD연합회 선정 259회(2021년 9월) '이달의 PD상' 디지털콘텐츠부문 수상작 / <용돈 없는 청소년> 시리즈 / 디지털콘텐츠국 김지수·신혜림·박준형·황민아·심진수 조합원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3분기 방송기술인상 수상 / 서울 기술국 김준수 조합원
- 한국PD연합회 258회(2021년 8월) '이달의 PD상' 라디오 특집부문 수상작 / <Hot Summer 10 대 가요제> / 서울 제작국 이지현, 박선형 조합원

수상, 그 뒷이야기



[씨리얼 콘텐츠를 라디오 다큐로 재제작한 협업 / 디콘 황민아 조합원
씨리얼의 올해 프로젝트 <용돈 없는 청소년>은 6편의 유튜브 영상 시리즈입니다. '용돈'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기회 격차가 이후 삶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토크본 콘텐츠인데요. <용돈 없는 청소년>은 이번에 '이달의PD상' 디지털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가 CBS 라디오 다큐멘터리로도 재가공 됐던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어떻게 유튜브 영상이 라디오 다큐로도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지원작이어서 라디오 제작이 수행 요건 중 하나였던 <용돈 없는 청소년>. 유튜브 영상 시리즈를 매듭짓고 난 뒤, 라디오 다큐멘터리 제작을 앞두고 막막했습니다. 늘 시각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왔기에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은 처음이었거든요. 영상을 만들며 혼란스러울 때면 머리를 비우고 시청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봤던 것처럼 이번에도 청취자의 입장에서 그간 제작국에서 송출된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하나씩 감상해보았습니다. 2013년 <음악으로 그린 서울 지도>부터 2014년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였던 <라디오, 날개를 달다>, 2016년 세월호 참사 2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2018년 <자살률의 비밀> 시리즈까지 유수의 프로그램들을 들어보면서 우리 회사의 여러 작업들을 찬찬히 엿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시리즈를 라디오 버전으로 재구성하고 송출하는 과정은 제작국 조합원들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터뷰이의 목소리와 현장음을 안내할 라디오 내레이션은 서연미 조합원이 맡았는데요. 사연들의 무게감이 워낙 컸던지라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한 경제적 결핍을 겪은 인터뷰이들의 경험을 한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끔 내레이션 톤을 만들어갔어요. 원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박선영 조합원이 공유해준 노하우 덕분에 힘 있는 라디오 내레이션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천장ㅎㅎ) 아래 있었지만 디지털콘텐츠국 외 다른 국 조합원 선배, 동료들과 콘텐츠를 위해 진득하게 머리를 맞대본 것은 처음이었습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간의 경계를 낮춰 자유로이 경유하면 다양한 플랫폼도 넘나들 수 있는 멋진 콘텐츠가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봤습니다. 덕분에 <용돈 없는 청소년> 시리즈는 추석 명절 발송된 하나의 편지가 되어 이름 모를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었습니다.

제작/보도국장 선거 무엇이 달라졌나요?

8일부터 선거운동 금지...전 조합원 1차 투표(11/18), 해당국 2차 투표(11/29)

2021 / 11~12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	8 예비후보자 통지 (선거운동 금지 시점)	9	10	11 입후보자 공고	12	13
14	15	16	17	18 1차 투표 (전 조합원)	19 1차 투표 개표 공고	20
21	22	23	24	25 후보자 공청회 (보도국 10시 / 제작국 15시)	26	27
28	29 2차 투표 (제작국/보도 국 조합원)	30 2차 투표 개표 공고	1 이의 신청 기간 종료	2 최종 후보자 확정		

CBS 제작/보도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추천선거인 점을 감안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이번 선거는 예비후보자 통지일인 11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 특히 ①식사 등을 포함한 금품 제공 및 청탁과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 ②타 후보 비방 행위 ③위협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지 강권 ④선거운동 목적의 연락 및 접촉 행위 ⑤선거운동 요구나 수락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부정선거 운동의 적발과 조사는 노동조합 공정방송위원회가 담당하며, 노사 공정방송협의회에서 투표 개시 24시간 전까지 심의를 마쳐 주의경고·피선거권 박탈의 제재를 가합니다. 특정후보를 지지를 타 조합원에게 요구하거나,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에 따른 징계는 별도로 합니다.

선거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에 가입한 모든 조합원에 있습니다. 단, 조합규약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이번 선거부터 '해당 국에 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해당 국의 책임보직부장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했습니다.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은 피선거권자 전원이 입후보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투표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해외특파원과 해외연수자는 부득이하게 사고처리합니다.

1차 투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 투표는 제작·보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합니다. 추천 선거 과정에서 노조 홈페이지와 노보(공방위 특보), 뉴스레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들의 약력과 정견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목)에 오전 10시 보도국, 오후 3시 제작국 후보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노조 홈페이지와 사내 그룹웨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